

2011. 2

www.worldview.or.kr

CHURCH & MISSION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꿈꾼다, 서초동 새로운 교회

PEOPLE & PEOPLE

안양 샘병원 박상은 원장

WORLDVIEW COLUM

시장과 경제의 발전, 그리고 공정과 상생

가정의 행복은 남자하기 나름이다

믿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학의 기초와 신앙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교사

MOVIE REVIEW

영구를 통한 할리우드 정복은 가능한가?

세상을 보는 바른 눈

worldview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ASSOCIATION OF CHRISTIAN WORLDVIEW STUDIES

SAMSUNG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Tab하게
될 것이다!

슈퍼미디어 GALAXY Tab

읽고 보고 듣고 찾고 통화한다 Life is Tab! Tab! Tab!

- e-Reading 8만권의 도서, 8종의 신문/잡지, 100여종의 만화, 연구보고서, 전문지를 Tab하다
- e-Learning 전자사전,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 교과서를 Tab하다
- Multimedia 카메라, 지상파 DMB, VOD서비스, 3D게임을 Tab하다
- Utility 아이나비 3D 내비게이션, 디지털 액자, 여행가이드북을 Tab하다
- Smart work 탭만의 음성/영상통화, 문서 수정, PC처럼 인터넷을 Tab하다

QR코드로 즐기는,
“컬투와 함께하는 택택시”

www.tabtaxi.com에서 18개의 택택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Samsung
Anycall



FEBRUARY 2011 VOL.128

발행인_손봉호
편집인_김승욱
편집_차명실
편집위원_강진구, 권성윤, 권오병, 김승태,
김원수, 김정일, 김종락, 박동열,
성백영, 이승구, 유해신,
장갑덕, 최태연, 한윤식,
출판위원_유정철, 김승태, 김건주
제작_한국학술정보

주소_140-909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대표전화_02-754-8004
팩스_0303-0272-4967
E-mail_(사무국)info@worldview.or.kr
(학회)gihakyun@daum.net
Homepage_www.worldview.or.kr



표지사진 이집트 콥트교회, 장유진
이집트에서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기독교인 마을에 위치한 콥트교회.
이곳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신분증에
는 종교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슬
람 사회인 이집트에서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를 재
활용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온전한지성 DEW가 WORLDVIEW로 제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
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WORLDVIEW THEME

04 신년의 기도_김성수

CHURCH & MISSION

08 세계관 목회 리포트
서초구 새로운 교회_편집부
12 세계관 해외 동역단체
절강대학교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_오동일

PEOPLE & PEOPLE

16 동역자 사역소개
안양 샘병원 박상원 원장_편집부

WORLDVIEW COLUMN

20 시장과 경제의 발전, 그리고 공정과 상생_조성봉
24 믿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학의 기초와 신앙_박문식
28 가정의 행복은 남자하기 나름이다_정동섭
32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교사_김윤권

MOVIE REVIEW

34 영구를 통한 할리우드 정복은 가능한가?_강진구

BOOK REVIEW

38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_최갑종

WORLDVIEW NEWS

44 활동보고와 회원소식
46 회비 및 후원안내

Worldview Thema

신년의 기도

글 김성수 고신대학교 총장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



모세의 세계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다시금 2011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새 해에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원님들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셔서 기독교 세계관과 학문 운동을 더 효과적이며 역동적으로 전개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새해를 맞으면서 저는 시편 90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응답받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모세의 기도 제목은 정말 놀라울 정도이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모세의 출발점이 바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 출발점을 우리는 관점 또는 세계관이라 부르기도 한다. 모세는 창조주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이 하나님은 또한 대대에 걸쳐서 자기 백성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1-2절).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기이함으로 가득 차 있다. 만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씨를 노래하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은 모든 것을 오염시켰다. 강의 오염에서부터 제도의 부패에 이르기까지 인간 타락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는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윌터스(A. Wolters)는 “창조의 지평은 타락의 지평이며 타락의 지평은 구속의 지평”이라고 했다. 우리는 인생과 세계를 창조-타락-구속의 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니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보였던 것이다. 첫째는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천년이라는 세월도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다. 인생이란 잠시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돋는 풀이 싱싱하고 영원히 자랄 것 같아 보여도 저녁이 되면 벤바 되고 말라지게 되는 것처럼 인생 역시 그러하다. 인생은 정말 짧은 것이다.

둘째는 이 짧은 인생은 그럼에도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초래했고 창조 세계의 파괴를 초래했다. 인류의 조상은 평화의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며,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심판을 받았다. 여호와와의 진노가 임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년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는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네 가지를 간구한다.

모세의 네 가지 간구

첫째는 우리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12절)라고 기도하고 있다. 지혜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한다. 짧은 인생인데 남은 날이 얼마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분별없이 살아버린다면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짧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남은 날을 헤아리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기회, 시간, 재능, 물질 등 모든 자원들을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르치고 연구하며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이 축복은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청지기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야 나가야 할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 우리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교육과 학문의 영역에 종사할 수 있는 날도 한정되어 있다. 이 특권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직에서 은퇴해야 하는 날이 순식간에 다가올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남은 날을 헤아리면서 현재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14절) 해 달라는 것이다. 모세는 심지어 “우리를 곤고케 하



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년수대로 기쁘게 하소서”(15절)라고 기도한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기독교 신앙은 금욕적인 생활이나 현실 도피적인 생활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신선한 공기, 하늘에 흐르는 한 조각 구름과 넘실거리는 파도, 한 송이 들국화와 새들의 합창, 음악과 미술, 친구들과의 교제, 품에 안기며 바라보는 자녀들의 미소, 아내와의 사랑, 기도하며 예배하는 경건의 시간 등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생활을 감내해야 한다. 공의와 평화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충일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구속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모세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16절)라고 간구한다. 여호와와의 하시는 일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의 굴레에 묶여있던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자신의 창조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삼 일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창조세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는 미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거시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해리 블레마이어(Harry Blamires)의 말과 같이 이 지상의 모든 문제들을 영원의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은 영원의 관점 곧 마이클 고헌(Miachel Goheen)이 말하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a grand story)를 장엄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모세는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17절)라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며, 우리 삶의 모



은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면서 학자가 아닌 '그리스도인 학자'

이러한 삶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축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은 불타는 심판에서도 넉넉히 남는 공력이 될 것이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고전 2:12-13)

우리는 흔히 표현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면서 학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학자'들이 되어야 한다. 연구와 교육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 학자로서의 모든 삶이 오직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될 때 그 삶은 심판날에도 견고해 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세월은 정말 빠른 것 같다. 2011년 새해도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다. 정말 짧은 인생이다. 동시에 모든 면에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어려운 인생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창조주 되시고 영원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주옵시고, 짧고 어려운 인생인데 이제 남은 날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구속역사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견고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2011년을 맞는 우리 동역자 모두의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기독교세계관 목회 리포트 | 서초구 새로운교회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꿈꾼다

글 편집부

최근 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의 비리로 인해 한국 사회가 개신교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하다. 가톨릭과 불교는 성장하는데, 개신교 교회는 매년 약 5백 개씩 줄어, 한때 6만개를 자랑하던 개신교 교회가 5만개로 줄었다. 그 중에 4만개 가까운 교회가 백 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고, 개척한지 10년이 지나도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가 전체 개척교회의 반이 넘는다. 이러한 어두운 한국 교회 상황에서도 세상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독교세계관을 가르쳐,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신앙운동을 통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21세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들을 소개한다.

세상 문화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는 삶의 현장에서의 변화를 강조하는 교회이다. 새로운 교회는 2009년 9월 6일,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던 한 홍 목사가 박은영 목사와 파트너십을 이뤄 약 50명 정도의 초기멤버들과 함께 창립되었다

새로운 교회의 3대 비전은 “세상 속으로(into the Market place)” “열방 속으로(into the Nations)” “미래 속으로(into the Future)”이다. 이러한 3대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문화 속에서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각자가 새롭게 되고, 한국 교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기여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척 첫 해에는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전 교인의 훈련에 역점을 두었다.

처음 4개월은 새벽기도와 주일예배에 총력을 기울이고 소그룹 순모임을 만들었다. 5개월이 지난 2010년 2월부터는 성경 전체를 읽는 Bible Master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먼저 직장인들을 위해 성경 66권이 담긴 MP3 플레이어와 매주 업데이트되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 성경을 읽어 나가게 했다. 2백 명 가까운 사람들이 신청하고 시작했는데, 조별로 촘촘히 서로를 챙기게 묶어 놓았기 때문에, 자칫 낙오의 위험이 있는 ‘폭탄’들도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기며 잘 버텼다고 한다.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도록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다들 놀랍게 삶이 바뀌어 갔다. 한 달 후에는, 여성 주간반 100명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했지만, 직장인반보다 2배로 진도가 빨라서 그 열기가 대단했다. 또한 강력한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LCS (Life Coaching School)을 출범시켜, 60명이 1기 교육을 마치고, 현재 2기를 준비 중에 있다.

훈련 과정 LCS(Life Coaching School):

8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최고 수준의 전문 영성 훈련이다. 나눔과 과제, 아웃리치 과정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영성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학생들의 삶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남성 성도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활동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여 ‘세상 속으로’라는 교회 비전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을 모든 교회의 리더들이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으로 삼아 전 과정을 마친 성도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주 안에서 하나됨의 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세움집에 따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교인들의 모습을 창립 1주년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책자로 소개했다.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는 한홍 목사는 개척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작은

새로운 교회의 3대 비전



세상속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천 전문인 및 리더십 양성 21세기 한국형 클래뎀 공동체를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세상속에서 전도 지향적 소그룹을 인도하며, 세상 속의 각종 컨퍼런스 및 훈련 프로그램에 강사와 참가원으로서 적극 참여하며, 세상과 다리를 놓는데 전력을 다한다.



열방속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며, 세계 주요 문화를 끌어안는 글로벌 예배와 사역을 적극 기동한다. 이를 위해서 서울의 15세대 및 외국어권 리더십을 적극 품는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을 격려하고, 네트워크를 키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회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출장다니는 비즈니스맨 멤버들을 적극 활용한다.



미래속으로

주일학교와 청소년 사역을 한국어와 쉬운 이중 언어로 진행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주일학교 시스템을 지향한다. 또한 유학 갔다가 방학때 돌아온 자녀들을 위한 여름과 겨울의 특별 영성 훈련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온라인 교회시스템의 인터넷 화상채팅 및 블로그를 적극 활용, 국내외에 흩어진 자녀들도 항상 온라인상의 소그룹에 속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청년과 청년 청년과 중고등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를 연결시키는 사디리시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좋은 자연환경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패밀리 프로그램도 창조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개척교회들이 살아야 한국교회 전체가 산다고 하면서 개척교회를 도와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한다. 개척교회는 살아남기 위해 서라도 영적인 야성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도하는 교회는 대부분 개척교회라고 주장한다. 한홍 목사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10년을 섬겼지만, 개척교회를 하면서 비로소 목회를 완전히 새롭게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새로운교회도 개척교회이지만, 여건이 어려운 지방의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개척 2개월 만에 맞이한 첫 추수감사절 헌금을 전액 미지립 교회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데 사용했고, 지난 해 두 번째 맞이한 추수감사절에도 헌금 전액을 한국 내 미지립 교회, 외국인 노동자, 해외 선교사 등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아직 예배당도 마련하지 못했지만, 건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러브펀드를 만들어 베푸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교회는 개교회 주의와 물량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한국 교회 현실에서 교회가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복음과 문화: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복음은 예수님이요 구원이다. 그러나 문화는 나이, 상황, 지역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문화란 한 시대의 가치관, 생활습관, 음악, 건축, 문화, 영화, 연극, 패션, 스포츠, 디자인, 미술, 기타 트렌드를 총괄적으로 일컫으며 그 시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읽고, 느끼는 모든 것이다. 문화는 파도처럼 몰려온다. 교회가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화에 휩쓸리면 죽지만, 파도를 타면 기막힌 스포츠가 된다. 우리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되어 한다. 복음은 스스로 존재하기 어렵다. 문화가 꼭 있어야 한다. 마치 물과 그릇과 같다.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그냥 먹을순 없다. 그릇이 꼭 있어야 물을 먹는다. 그것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다. 복음을 그냥 먹을수 없기에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만 한다는 것.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릇이 더러우면 더러운 물을 먹어야 한다. 예수님은 좋은데 문화가 타락하면 기독교도 더러워진다. 그래서 교회는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

교회와 세상은 바다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파도와 폭풍이 올 수 있지만 배는 간다. 예수님도 생각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좀 생각해야 한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크리스천도 현실을 도피해서 산으로 갈 수 없다.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한 홍 목사의 목회일지 중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교회 프로그램

한 흥 목사는 한국 교회의 문제로 획일화를 들었다. 지역교회들의 목회 패러다임이 모두 다 똑같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에 대형교회들이 하는 좋다는 프로그램을 다 접목시키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시 주저앉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보다는 담임목사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흥목사는 청소년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성장한 교포 1.5세대. 그리고 대학에선 정치외교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국제화된 3,40대 도시 직장인 남성들이 자신의 설교와 목회에 잘 맞다고 판단하고 서울 서초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조그만 클래식 음악실에서 창립예배를 드린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예배 참석인원이 1,200명이 넘었다. 그러나 새로운교회는 또 하나의 대형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에 한국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진정한 새로운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한 흥 담임목사 개척교회 목회자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14세때 미국으로 이민, UC 버클리를 졸업하고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온누리교회 양재성전 담임목사(1999-2008)와 햇빛트리니티 리더십센터 원장으로 섬겼으며 ‘기도,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라,’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거인들의 발자국,’ ‘칼과 칼집’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박대영 목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생화학 석사(M.S)를 받은 후 실험실에서 근무하다 귀국후 온누리교회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햇빛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받았다. 온누리 교회에서 여성사역 본부장과 예수제자학교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흥 목사와 새로운교회를 개척해서 기획과 리더십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박담희 목사 마이애미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스탠포드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했다. JCI 세계상임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업가로써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탈봇 신학을 졸업하며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 온누리 교회의 예배와 행정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데 공헌했으며 현재 새로운교회의 예배행정을 총괄하고 있다.

절강대학교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에서는 해외 여러 기독교 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상호간에 학술적인 지원과 학자간 교류를 통하여 기독교세계관을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최근 기독교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독교 학문과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중인 중국의 기독교 학술연구 단체를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글 오동일 절강대학교 기독교와타문화연구소 연구원

절강대학교 (浙江大學校)

절강대학교는 “북경에 칭화대학이 있다면 남방에 절강대학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이공계대학으로 현재는 문·사·철 및 경상 계열도 최고의 수준에 오른대학이다. 영국의 석학에 의해 ‘동방의 캠브리지’로 불리기도 하는데 중국과학원 원사와 중국공정원 원사의 60%가 이 학교 출신인 만큼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중국내 대학 평가에서 3등 정도 되는 명문대학이며 국가 중점대학이다. ‘求是’를 교훈으로 삼고 있는 절강대학교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중의 하나이며 1897년에 ‘求是書院’으로 창건되었다. 1998년 3월 공통 역사적 연원의 절강대학교, 항주대학교, 절강농업대학교, 절강의과대학교가 합병되어 현재 규모가 가장 큰 종합대학으로 설립되며, 학교 도서관은 전국 대학에서 가장 많은 605만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교육목표를 ‘종합형’, ‘연구형’, ‘창조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으로 잡아 100년간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를 발전시키고 있다.

학과는 이공, 경제, 무역, 관리, 문학, 사학, 철학, 교육학 그리고 법률 등 크게 11개 부분으로 나눠 설립되었으며 124개의 박사과정, 192개의 석사과정이 있다.

학교가 위치한 중국 절강성 항주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절강성의 성도(城都)로, 중국이 자랑하는 관광지 중의 하나이며 자원이 풍부하고 경치가 수려한 곳이다. 특히 항주의 서호는 백낙천, 소동파 같은 시인들이 시를 읊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으로, 13세기 무렵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행가 마르코폴로는 항주에 들렀다가 도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항주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칭송했을 정도이다. 주변의 상해시와 인접해 있어 대외 무역과 상품경제가 가장 발달하였고 경제 성장률도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절강대학교 기독교와타문화연구소

(The Institute of Christianity and Cross-Cultural Studies, 약칭ICCS)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에서 중국의 교육과 과학기술 및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철학사회과학 창신 기지들을 설립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주임으로는 왕소오초 교수가 맡고 있다.

ICCS는 기독교의 문화적 의미를 연구하고 그것이 전파되는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되는 타문화와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현재 연구센터에서는 헬라문화와 초기 기독교 관계연구, 종교철학과 종교간 대화, 기독교의 전파과정 연구, 전환기에 있는 중국기독교 연구, 문화와 종교간 충돌문제 연구 등 다섯 가지의 연구방향을 정하여 진행중에 있다.

연혁

절강대학교 6개의 캠퍼스 가운데 지강캠퍼스의 전신은 기독교 대학이었다. 절강대학교는 기독교연구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역사적 이유로 중국대륙에서의 기독교연구는 중단되었으며, 20세기 80년대 개혁개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91년 3월에 절강대학교는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기독교연구센터”를 공식 출범시켜 해외학자들을 초청하고, 기독교 고전, 예식, 신학과 기독교역사, 종교사회학, 종교심리학 등 강좌들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해외 학회학자들과 단체들의 도움으로 <종교와 문화>(북경, 동방출판사, 5기를 출판했음)라는 잡지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기독교연구센터”는 운영경비, 조직제도, 연구시설 등이 전무한 상황에 해외지원에 의지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04년11월에는 “기독교연구센터”는 중국 교육부 산하 철학사회과학 창신기지로 지정되면서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소”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ICCS는 “기독교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하여 절강대 인문대학, 국제문화대학, 교육대학, 외국어대학, 법학대학 등에서 기독교문화 관련연구에 종사하던 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학제간 연구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현재 34명의 연구원은 정교수 21명, 부교수 7명, 전임강사 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계기로 절강대학교는 기독교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고 있다.

학술교류와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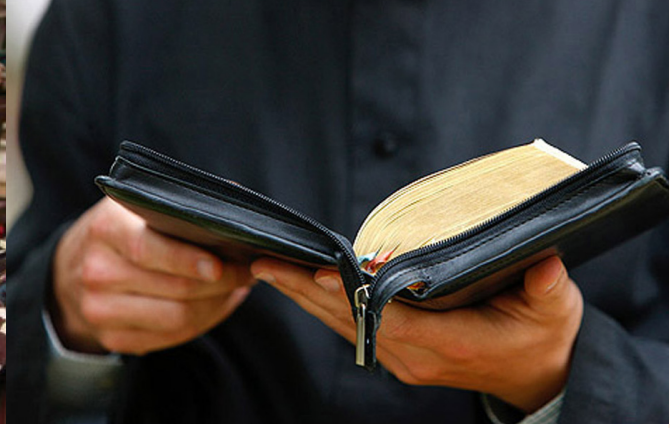
학술과 학과는 국제적인 것으로 거기에는 국경이 없다. 우리의 기독교연구는 세계 기독교문화 연구의 한 부분이 된다. 국제학술연구의 구성 부분이 되면서도 자체의 특징과 우세를 형성하는 것이 ICCS가 존재하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내외 학술교류와 협력은 본 센터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사업으로 간주한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본 센터는 국내외 많은 단체 혹은 대학들과 다양한 학술교류와 협력을 이루어왔다. 그 주요한 형식으로는 공동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학술 정보를 나누고, 전문가들을 서로 파견하여 학술세미나를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우수한 학생들과 젊은 교수진들을 해외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ICCS는 계속하여 의중경제문화교류협회, 콜롬비아대학, 미국CAC, 미국천주교연구회, 예일대학, 프린스턴대학, Santa Borban대학, 씨애틀 퍼시픽대학, 이태리철학연구소, 토론토대학, 암브로시오서관, 영국리츠대학, 이스라엘 베들레헴대학, 대만청화대학, 중원대학, 홍콩한어기독교문화연구소, 홍콩중문대학, 침례대학, 홍콩천주교신학연구소등과 학술교류와 협력을 이어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ICCS는 고대 슈메르 (Sumer) , 아카드 (Akkad) , 바벨론 (Babylon) , 이스라엘과 환지중해권의 고전학 연구에 조예가 깊은 학자들



홍콩한어기독교문화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중국어 잡지로서, 반년에 한번씩 발행하고 있다. 약 300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현재 까지 33권을 발행하였으며 국제학술검색 AHC에 등재된 잡지이다.



절강대 기독교와타문화연구소 홈페이지
<http://iccs.zju.edu.cn/iccs/DesktopDefault.aspx>



을 초청하여 교학과 연구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헬라문화, 라틴문화, 현대종교철학, 중국과서양관계사 연구 학자와 단체들과도 협력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ICCS는 중국사회과학원세계종교연구소, 북경대학, 중국인민대학, 중앙민족대학, 복단대학, 남경대학, 청화대학, 무한대학, 중산대학, 사천대학, 산둥대학, 복건사범대학, 화중사범대학, 영남대학 등 10여개 종교 혹은 기독교연구단체들과도 학술교류가 있다. 이들 형제 단체들은 그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중국의 기독교문화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ICCS는 중국교육부가 직접 투자하여 운영하는 개방적인 연구단지이다.

동아시아기독교문화연구소 설립도 추진중

동북아 3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져왔다. 특히 한반도는 오랫동안 외적 환경에 의해서 그 운명이 정해져 왔다. 이념과 전쟁, 침략으로 얼룩진 냉전시대를 벗어나 진정한 화합이아말로 한반도의 통일은 물론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다. 동북아의 경제-문화 차원에서의 상호 교류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다지는 초석이 된다.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센터는 그 부설로 '동아시아 기독교문화 연구소'를 설립하여, 한-중-일 기독교 간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기독교적 차원에서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코자 한다.

북경대학교 허화이홍 교수는 “니체가 백여년 전 ‘신은 죽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배제한 유럽의 새로운 문명을 제언하였지만, 오늘의 중국 학자들은 ‘신이 중국에 임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기독교가 중국의 대안이 될 것인지를 논의할 때가 되었다” 고 하였고, 중국인민대학 리쑤우링 교수는 “기독교는 중국에서 주변화된 처지에서 주류문화가 되어 중국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청화대학교 황유생 교수는 “기독교야말로 동북아의 평화와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중국 학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단순한 인기 영합적인 즉흥적인 발언이 아닌, 중국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중국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내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과 영향력의 저변 확대이다. 이는 세계의 중심국가들(로마제국, 대영제국, 미합중국 등)에는 항상 기독교가 내부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과도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한다. 기독교와 타문화연구센터 부설 '동아시아기독교문화연구소'는 이와 같은 중국대학 내 기독교연구 지적분위기 속에서, 한국기독교를 중국에 보다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 중국내 기독교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한-중-일간의 상호이해와 신뢰구축에도 기여하려 한다.

기독교가 중국의 주류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연구와 담론이 중국 지식인들에 널리 소개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 '인민의 아편'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기독교야말로 중국인들에게 삶에 궁극적 의미를 제공하고, 중국 문화를 변혁하고, 법치와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임을 인식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교환교수, 교환학생 등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연구프로젝트 진행, 정기학술지 발행, 도서 번역출판, 연구비 및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아시아 기독교문화 연구소'는 한-중-일 간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한국 그리스도인 단체들의 인적, 물적인 지원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들이 추진되어지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1km일까? 1m일까?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기독교 영성학 교수인 저자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추구하고 애쓰는 과정에서 탐구한 지혜와 경험담들이 겸손하면서도 유익하며 흥미롭게 담겨 있는 이 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선물이다.

원 저자: 존스 지훈 | 역우: 이윤희 | 신: 239쪽 | 2007년 | 12,000원

2011년 새해들
CUP와 함께!



PEOPLE & PEOPLE

기독교 세계관 동역자 사역소개 | 안양 샘병원

박상은 원장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도 “세계관선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온화하고 넉넉한 미소의 박상은 원장은 의료선교를 통해 기독교세계관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귀한 동역자이다. 생명윤리와 전인치유 사역 등의 바쁜 일정 관계로 인터뷰를 서면으로 대신하였음에 양해를 구한다(편집자 주).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섬기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아프간 피랍사태로 유명해진 분당샘물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으며, 현재 선교위원장으로 60여명의 파송선교사를 돕고 있으며, 아프리카목장의 목자와 초원지기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가족 특별히 형제분들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안의 신앙내력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신앙적인 가정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이들 여섯에 딸 하나인 칠남매였는데, 그 중에서도 막내인 쌍둥이로 태어나서 함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참조) 기도 열심히 하는 동생은 목사가 되어 현재 장신대 교수로 있는데, 종종 재미난 일도 있습니다. 얼마 전 장신대 목회자리더십 아카데미에 제가 인간복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제 쌍둥이 동생이 사회를 보며 저를 소개하기를 자신의 복제인간이 인간복제를 강의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동생이 목사 안수 받는 날, 제가 늦게 교회에 도착했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제 손을 잡고 울면서 안수식이 시작되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시면 어떡하냐고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샘의료원의 의료원장님으로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샘의료원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언제였는지요?

샘병원 재단이사장 아드님인 이대희선생이 제 누가희 후배인데, 2000년 늦가을 밤중에 저를 찾아와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병원을 향후 자신이 물려받게 될 터인데, 우리 누가희가 꿈꾸던 선교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서 와서 함께 일하자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나름 관찮은 병원에 근무하던 저로서는 고민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부



르시는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샘의료원에 대한 소개와 주요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샘의료원은 안양샘병원, 샘여성병원, 샘한방병원, 그리고 곧 개원할 군포샘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1,000여 병상의 적지 않은 규모이지요. 샘병원의 비전은 전인치유, 생명사랑, 의료선교로 요약되며, 현재 기독교병원협회의 회장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병원의 모델이 되기 위해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암센터를 비롯해 관절전문병원, 뇌척추전문병원, 여성전문병원, 한방병원 등 나름대로 최첨단의 의료와 영적인 치료를 포함한 전인치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련병원으로 교육과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긴급재난구조팀과 해외단기선교팀 등 봉사 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샘의료원에서 원장님께서 맡고 계신 역할과 개인적으로 애정을 갖고 추진하고 계신 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짬짬이 환자들을 진료합니다만, 대부분의 시간은 의료원장으로 4개 병원의 전반적인 경영을 총괄하며, 특히 대외적인 일을 주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일은 아프리카사역입니다. 저희 병원이 주축이 되어 만든 (사)아프리카미래재단의 상임이사로 말라위와 짐바브웨에 병원과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세우는 일을 섬기고 있지요. 에이즈와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심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누가회 사역을 통해 크리스천 의료진들을 돕고 계시는데 소개해주세요.

누가회는 세계 신앙의 눈을 뜨게하고 선교의 비전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느새 30년이 지난 누가회에 저

의 역할이란 후배들에게 멘토로서 제가 잘못 행한 길을 따르지 않도록 알려드리는 것이겠지요. 지금은 일선의 역할을 맡지는 않고 있어, 뒤에서 상담하고 지역모임에서 후배들과 교제하며 제가 오히려 힘을 얻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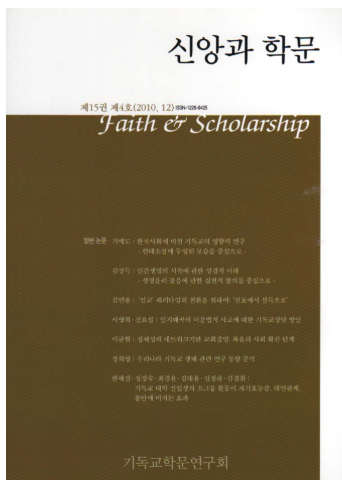
여러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밑바탕에는 기독교세계관이 있으신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역회와의 만남, 그리고 앞으로 함께 할 여정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누가회가 MF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송인규목사님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세계관에 대해서 일찍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의료를 세계관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고, 생명윤리, 사회의학, 생태의학, 전인지유 등 기독교세계관은 저의 삶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1989년 고신의대 교수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독교대학설립 동역회 활동을 접하게 되었고, 특히 캐나다 밴쿠버 VIEW에서 양승훈교수님 등 여러 교수님으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되어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후에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이사로 참여하면서 소중한 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기독교세계관 운동에 저의 시간과 열정을 쏟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남부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명목상으로는 기독교국가인 나라들이 가장 에이즈가 많고 가난이 심한 것이 바로 세계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도 “세계관선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러한 세계관운동의 확산에 미력하나마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과 학문 신간안내

신앙과 학문 15권 4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앙과 학문은 학술등재지로 학문의 각 영역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연구한 내용들을 널리 소개하고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투고 논문은 학회 사무국에서 상시 접수하며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연 4회 발간되는 발행일에 맞춰 게재됩니다. 관심있는 학자들의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제15권 4호 목차안내

- 한국사회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 연구
-현대소설에 투영된 모습을 중심으로(기애도)
- 인간생명의 시작에 관한 성경적 이해
-생명윤리 물음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김상득)
- '설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선포에서 설득으로’(김연중)
- 인지왜곡의 이분법적 사고에 대한 기독교상담 방안
(서영희 · 전요섭)
- 정체성과네트워크기반 교회경영: 복음의 사회 확산 단계(이규현)
- 우리나라 기독교 생태 관련 연구 동향 분석(정희영)
- 기독교 대학 신입생의 소그룹 활동이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불안에 미치는 효과
(한혜실 · 정정숙 · 최경윤 · 김대용 · 심정하 · 김경휘)

한정화 교수의 '공정과 상생'을 읽고

시장과 경제의 발전, 그리고 공정과 상생

지난 달 실렸던 한정화 교수의 글 '공정과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다루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의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벌 대기업이 부당 내부거래, 편법상속, 위장계열사 문제 등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비판하고 이들이 막강한 권력집단이므로 여론과 법적 장치를 통해 제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가능할까?

한교수께서 제기하는 재벌 대기업의 문제점은 공정과 상생이라는 논의의 주제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겠으나 부당 내부거래, 편법상속, 위장계열사 문제 등 논의의 주제가 회사법, 공정거래법 및 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사안별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도록 한다. 필자는 한교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 논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한교수께서 이마트 피자나 롯데마트 통큰치킨의 사례를 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진입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아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그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전가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기업이 영세 자영업자들과 경쟁하는 것은 정당성이 결여되며 배려의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교수는 특히 1,0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이웃집의 1마리 양을 넘보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이며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 놓아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성경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강압적(?) 가격인하 시도

먼저 한교수께서 지적한 효율성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한교수는 이마트의 피자나 롯데마트의 치킨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상품일 뿐이고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직접 원가만이 아닌 부차적인 서비스나 장소에 대한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교수는 이들이 강압적 가격인하를 시도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 결국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강압적'이라는 표현이다. 이마트에 피자를 공급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는 조선호텔 베이커리이고 또 이





로 인해 상당한 이득을 올리고 있으니 논외로 하자. 롯데마트의 경우를 보면 통큰치킨을 팔면서 중소 양계업자에게 가격을 '강압' 적으로 싸게 받아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양계업자도 손해를 보면서까지 롯데마트에 닭을 공급하지는 않는다. 롯데마트 외에도 닭을 팔 수 있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강압이란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물론 롯데마트가 구매하는 물량이 커서 다른 곳보다 싸게 공급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롯데마트의 대량 구매에 따른 효율성과 협상력의 결과로 보아야지 이를 '강압' 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통큰치킨이 미끼상품이므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평가절하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마케팅에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 있다.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화장지를 무료로 주는 경우도 있고 통큰치킨처럼 소비자에게 원가 이하 또는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면서 다른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상품인 Loss Leader도 있을 수 있다. 플라로이드에서는 카메라 가격을 원가 이하로 팔고 필름값을 비싸게 받는 전략을 택하였고 제록스에서는 과거의 복사기를 값싸게 대여하고 복사지 값을 비싸게 받는 전략을 택하였다. 통큰치킨의 경우 전체 프라이드 치킨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크지 않아 외국의 경쟁법이나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자면 독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른바 '약탈적 가격행위(Predatory Pricing)'라고 할 수도 없다.

정당성과 배려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뛰어들어 경쟁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고 배려의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은 글로벌 시대에서 시장과 경제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과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정하여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WTO체제와 FTA의 확산으로 시장이 개방되자 이 같은 중소기업 보호는 여러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외국에서는 이 같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란 제도가 없어서 대기업이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을 대량으로 만들어 수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과 경쟁하다 보니 소비자가 외면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문구류이다. 문구류를 중소기업 고유 업종 지정으로 인해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였으나 시장개방으로 미국의 3M 등 우수한 외국의 대기업제품이 진출하자 국내 문구류 시장은 외국제품 점유율만 높이지게 되었고 중소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유통시장이 1997년 개방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의 유통시장이 외국계 대형 할인매장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러나 거꾸로 월마트나 까르푸와 같은 외국계 대형 할인매장은 우리 유통시장에서 철수하였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같은 우리나라 대형 할인매장과의 경쟁에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중소매장만 있었고 우리 대기업의 대형 할인매장이 없었더라면 우리 유통시장은 외국계 대형 할인매장에 의하여 지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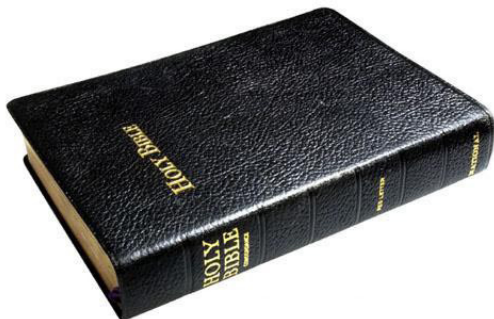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은 이 같은 글로벌 시대의 경쟁 이전에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도 항상 진행되어왔다. 대기업이 만든 과자가 골목 안 재래식 과자점과 빵집을 오래 전에 대체하였고 대기업이 만든 의류가 시장의 양장점을 대체하였다. 사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중소 대장간들이나 조선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포항제철이나 현대중공업이 생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이었고 시장에서 엇당을 만들어 파는 가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설당을 제조하는 대기업이 공장을 만드는 것도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아 부도덕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을 살펴보자면 우리가 민감하게 눈에 볼 수 있는 것 외에도 눈에 잘 안 보이는 수 많은 영역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부품을 직접 만들면 차라리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한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중간과정과 시행착오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소득분배, 공정성, 관용, 계층간 이동가능성, 민주주의와 나아가서는 환경문제까지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인이다.

라의 전자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소비자가 값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이어도 중소기업과 경쟁하였다면 중소기업을 배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시할 것인가?

시장경제를 거부하는 논리들

결국 이런 식의 논리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시장과 소비자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진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생산방식으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에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단순논리는 그 경계와 영역과 조업형태를 구분지을 수도 없다. 어디부터 중소기업으로 하고, 어디부터 대기업으로 할 것인가? 자산규모 1,000억의 기업이 중소기업과 경쟁하면 좋고 2,000억의 기업이 경쟁하면 안 되는가? 30대기업이 대기업인가, 아니면 '821'개 대기업까지 확대해야 하는가? 경쟁영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소비재로만 할 것인가, 생산재로까지 확대할 것인가? 소비재 안에서도 눈에 띄는 피자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들면 공정하지 못하고 눈에 안 띄는 자동차 유행유 시장에 뛰어들면 불공정한 것인가? 조업형태는 또 어떠한가? 피자시장의 경우 피자헛, 도미노 등의 외국계 또는 우리 대기업의 프랜차이즈가 주종인데 대기업계열의 프랜차이즈는 중소기업으로 볼 것인가? 서울우유나 농협과 같은 조합은 대기업으로 볼 것인가? 대형 할



인접인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소기업으로 볼 것인가, 대기업으로 볼 것인가? 이 같은 구분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에 대한 공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의미도 없는 호소일 뿐이다. 한교수의 논리를 구체적이고도 철저하게 적용하자면 우리는 미국의 아마쉬 마을의 기독교도들처럼 문명을 거부하며 살아야 할 지도 모른다.

한교수께서 인용한 성경구절의 내용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적용하는 것도 다소 무리라고 보여진다. 1,000마리의 양을 가진 자가 이웃집의 1마리의 양을 넘보는 것은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이를 지적하면서 비유로 든 내용이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간 명확하고 분명한 부도덕한 행위에 비유한 내용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구분하기도 어려운 내용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느껴진다. 또한 추수할 때 이삭을 남겨두는 이야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에 적용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고 본다. 이는 오히려 정부가 생활보호계층이나 보호하여야 할 계층에 대해 시행하는 복지기능에 대해 적용할 비유라고 판단된다. 중소기업은 그 자체가 당연한 경제주체이며 이삭을 줌은 존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버드 대학의 벤자민 프리드만 교수는 ‘경제성장의 도덕적 결과(Moral Consequences of Economic Growth)’라는 책을 통하여 여러 나라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 경제성장이 중간과정과 시행착오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소득분배(distribution), 공정성(fairness), 관용(tolerance), 계층간 이동가능성(social mobility), 민주주의(democracy)와 나아가서는 환경(environment) 문제까지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어려운 산업구조의 조정과 자원의 재배분 그리고 소비자 선택과 경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과 경제는 발전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상생의 문제도 다소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거치기 마련이다. 개별적인 사안과 경우에 따라 분명히 한교수께서 지적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이에 따라 대기업이 반성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시장과 경제의 발전 그 자체를 막는 것일 수 있다.

*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 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믿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학의 기초와 신앙

글 박문식 한남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구글 베이비

황우석 박사 사건은 연구비횡령과 불법 난자 매매, 논문조작이 얽혀있는 문제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파면처분은 증거의 적격성과 절차상의 문제라는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어 냈다. 결국 43차례의 재판을 거쳐 그는 법리적 차원에서 그러한 혐의들이 인정되었다. 특히 그의 핵심기술이었던 체세포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는 생명공학의 다이아몬드와도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재판부에서도 줄기세포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문제를 법원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며 법리적으로는 주로 실정법 위반을 가지고 판결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점은 과학 그 자체보다는, 과학적 내용이 경제적인 이득으로, 정치적인 이득으로 포장되고 과장되어 이용될 때 얼마나 반윤리적이고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는지를 일깨운 사건이었다.

최근에 구글 베이비라는 다큐멘터리가 HBO를 통해 최초 방영되었고 우리나라에도 EBS를 통해 방영된 바 있다. 이 영화의 감독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보게 된 캠퍼스 광고란의 어떤 특별한 광고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한다. 그 광고 문구는 “tall, attractive and with good SAT scores only, please” 라는 난자공여 광고였다. 그녀는 곧 수 백명의 대리모를 보유하고 아기생산 산업을 하고 있는 인도의 한 병원을 추적했는데, 그곳에서는 이를 규제



할 법이나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주들의 강력한 로비는 이것을 인도에서 마치 하나의 산업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한다.

접근이 어려운 요즘 과학

사실 대부분의 종교나 사상들은 과학과 대립하려 하지 않는다. 유독 유대-기독교가 과학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민감한 것은, 기독교만이 독특한 피조물에 대한 개념이 있고 창조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따라서 시작이 있으며 우리 인간은 그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이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역사가 마감된다고 하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기독교에서는 성경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의한 특별계시와 함께, 자연으로부터의 일반계시를 모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 쪽에서도 해석이 있어 왔는데 도킨스와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자연만이 존재할 뿐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말한다면 사실은 과학으로부터가 아니라 진화론을 골자로 하는 ‘과학적 자연주의’에 의한 해석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과학은 해석체계 또는 신념체계라기 보다는 그 이전 단계인 묘사까지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베이컨(Francis Bacon, 1561-1626)은 말했다.

“약간의 과학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더 많은 과학은 그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

현대과학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과학적 결과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그 내용에 관해 전해들을 때에도 어지간한 전문가가 아니면 잘못 듣기 십상이다. 설령 과학자라 하더라도 자기 분야를 벗어나면 전혀 문외한 일 수밖에 없다. 그 만큼 과학은 분업화 되어있고 따라서 남이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특별한 분야에서 과학의 결과들을 이해하려면 충분한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무신론 과학자들이 신앙을 간단히 무시해 버리듯이, 신앙인들도 과학적 결과들을 쉽게 무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독교에서 과학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학자들이 기독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는 것보다도 비슷한 일이 된다. 기독교는 과학을 배척해서는 안 되고 배척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말해야겠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서 과학의 발견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적절한(bad) 과학을 더 나은(better) 과학으로 인도해 가야 한다.

자연의 본질에 관하여

무신론 진영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그들은 세상이 무한히 긴 세월동안 존재 하였으며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은 무기물로부터 우연에 의하여 유기물이 되고 간단한 생명체를 거쳐 고등생물로 진화했다고 본다. 그들은 이러한 다윈의 생각을 바탕으로 많은 증거들을 수집했고 또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였다고 말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과학적 방법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 줄 중요한 증거들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 초 과학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주의의 해석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하나는 천문학적 관찰로부터 정립된 빅뱅이론이고(빅뱅이라는 말은 1950년 Fred Hoyle에 의해 붙여졌다), 다른 하나는 유전자의 정보해독이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일반상대성이론과 별들이 바깥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나타내는 별들의 적색천이(red shift) 등으로 부터 단순

성(균질성과 등방성)을 적용하여 지배방정식을 만들었는데(Alexander Friedmann), 이로부터 우주가 특별한 시점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지금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는 무질서도의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이 우주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것과 더불어 대폭발 이론이 우주의 시작 즉, 창조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빅뱅 이론이 최초의 팽창 이후 우주의 일반적인 변화에 대해 설명해낼 수 있다 하더라도, 팽창 바로 직후와 연관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러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 어떠한 입증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주의자들은 이번에는 이것을 두고 무로부터의 시작이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학법칙 즉, 인과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것이다.

어마어마한 크기와 정교함을 보여주는 천문학적 발견과 함께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DNA가 단백질의 덩어리로 보이던 것이 사실은 정보의 집합체였다는 발견이었다. 이 불가사의한 정보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된 것인가? 다윈은 당 시대에서는 DNA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다. 그가 구경해 보지도 못했던 후대의 화석으로부터는 종과 종 사이의 중간 진화의 흔적들을 볼 수가 없었다. 세포의 돌연변위와 적자생존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던 진화론자들에게 이 엄청난 양의 유전자 정보는 불가해한 일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자연계에서 보았던 금속의 물리적 결정구조와 같은 단순한 구조가 반복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적자생존을 공식화하고 지네트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얻는 결과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또 다른 과학자의 진영 즉, 정보수학자들은 이 정보들이 존재할 확률은 슈퍼컴퓨터의 계산을 빌리더라도 제로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유명한 천문학자 호일(Fred Hoyle)경은 생명이 우연히 존재할 확률은 1,050명이(1조x1조x1조x1조x100명)이나 되는 시각 장애인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마구 뒤섞어 놓은 루빅 큐브를 하나씩 나눠주고 이들 모두가 그 큐브를 동시에 풀어내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숫자가 너무 크므로 상상이 잘 가지 않는다. 이 큐브는 위치와 회전이 무려 43x1,018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 오직 하나인 정답을 맞추기란 만약 1초에 한번 무작위로 돌린다고 하면 이 우주가 100억년 전에 시작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 1010년x365x24x3600=31,5x1018 초 동안 아직도 그것을 맞추지 못하고 돌리고 있을 것이다. 스미스(Wilder-Smith) 박사는 그의 책 「자연과학은 진화를 전혀

모른다」에서 순수 과학적으로 명쾌한 주장을 하였다. 또한 저 유명한 ‘인간게놈프로젝트’를 지휘했던 생물학자인 콜린스(Francis Collins)는 자연과학이 신앙에 긍정적 전제를 제공한다고 말하였다.

갈릴레오는 교회의 재판을 받은 후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그는 말년에도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에게서 신앙과 과학은 조화를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반한다는 지동설도 그가 관찰하고 적용한 수학적 법칙에 의하면 변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많은 사람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하나님이 주신 법칙으로 믿는데 한 점 의심이 없었다. 그는 철학적 기독교적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창조주에게 돌렸다.

과학의 기초와 신앙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다. 아무리 과학을 통하여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과학적인 결론은 대부분, 불가지론이다. 아인슈타인도, 칼 세이건도, 스티븐 호킹도 이러한 길을 밟았다. 아인슈타인은 창조론보다는 악과 고통의 문제 때문에 절대자를 믿지 못하였다. 창조-타락과-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 창조주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성과 대속주로서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하는데 이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이다. 영적인 영역에서 과학은 어떤 것도 알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고통 즉, 죽을 운명과 식량부족, 에너지와 자원, 환경, 공해와 전쟁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도덕적 선택(죄)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에 대한 확신은 자연주의 철학의 오도된 형태의 구원이다. 그러나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과학은 하나님의 세계를 탐구하는 놀라운 도구이다. 그렇지만 과학이 인간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의미와 소망을 주는 것도 아니다. 칼빈과 루터는 “과학에의 집중이 사람의 관심을 창조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과정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였다. 루이스(C. S. Lewis)는 “기술적 진보가 인간을 좀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들은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과학의 기초는 위대한 근대과학의 선구자들이 보여 주었던 것처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방법론이다. 그들은 우주와 자연과 생명체의 모든 피조세계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먼저 기존의 어떠한 해석도 잠정적으로 의심하였다. 그들은 가설을 세우고 관찰과 엄밀하게 비교하였으며, 반드시 실험에 의해 이론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관찰을 할 수 없거나 실험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확신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목적론이다. 사실 이 부분은 현대과학에서는 부정되는 부분이다. 자연주의 과학자들은 스스로 어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가 들어설 수 있는 자리를 배제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사상에 대한 반동 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재를 이루는 원인들을 네 가지로 보았는데 그것은 목적인, 동력인, 형상인, 질료인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 과학에서는 목적인이 가장 중심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질적으로 규명하는 것으로 권위를 삼았다. 이런 경향은 관찰과 실험보다 세상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질적인 평가가 더 우선시 되는 문화를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르네상스 과학자들은 질적인 방법에서 양적인 방법으로 돌아선 것이다. 이후 근대과학자들은 스스로 과학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하고 그러므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두에서 언급한 예에서 본 것처럼 과학이 인간의 손에 주어진 이상 중립적일 수도, 객관적인 수도 없다. 코페르니쿠스에서부터 뉴턴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근대과학의 선구자들은 분명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도 어떤 목적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아름답고 정의로우신 피조세계의 질서를 찾는 것이며 또 그 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 질서를 왜곡하거나 파괴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과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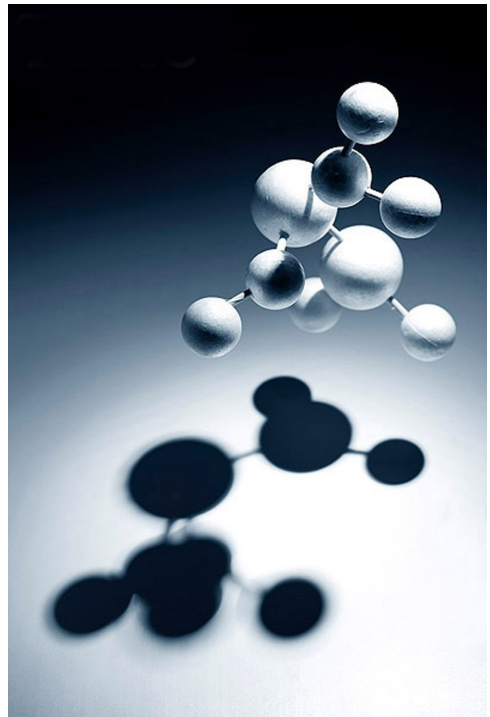
문화명령 대 지상명령

존 스토트는 기독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종교라고 강조한다. 즉, 인간이 찾아갈 수 없는 종교이다. 그분의 일은 스스로 주도하셨는데 그것은 창조와 계시와 구원이다. 그 분은 인간에게 호기심과 지성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지식을 추구한다. 우리의

지성은 과학영역을 비롯한 많은 영역에서 놀랍고 효과적인 도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르는 데에는 좌절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분은 자연을 통하여 그리고 자신 스스로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이것을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라고 부른다.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구속은 단지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은 아니다. 구속에는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일, 즉 문화를 창조하고 회복시키는 일도 포함된다. 여기서 교훈은 분명하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를 위해’ 구원받았다. 우리에게는 부적절한(bad) 과학으로가 아니라 더 나은(better) 과학으로 문화명령에 임해야 한다. 칼 세이건은 아름다운 우주를 찬양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허공에서 맴돈다. 기독교는 그 노래를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을 날에게 말하고 밤을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 19:1-4 a)



가정의 행복은 남자 하기 나름이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친구, 연인과의 원만하고 친숙한 관계라고 대답한다. 지금까지 행복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행복의 조건 가운데 1순위에 오른 것은 성공이나 돈, 아름다운 외모, 권력이나 인기가 아니라 친밀한 인간관계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글 정동섭 가족관계연구소장, 한동대 겸임교수

가족관계는 행복의 중요한 요건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세계 178개국 가운데 10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1960년대에 비해 1인당 GDP가 250배쯤 불어났다. 경제 규모 세계 13위, 수출규모 세계 7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로 국력이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을 느끼는 국민'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 2010년 말에 조선일보에서 10개국 5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행복선진국'들보다 좋은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캐나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미국, 덴마크, 핀란드에 이어 행복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안보에 대한 불안'과 '채물에 대한 집착'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막강해진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사회생태계의 붕괴에 있다. 불행한 가족, 위기에 처한 가족, 이혼하는 가족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이혼율과 자살율이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관계는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 자녀들의 행복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부부관계가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부부는 인생 전체가 행복하게 느껴진다.

어떤 암환자의 말을 들어보라: "우리의 삶을 전체적인 긴 안목으로 살펴보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족을 포함한 내가 아는 사람들과 맺는 인간관계이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그 밑에 딸린 것이라고 생각돼요." 사람의 기대가 영으로 줄어들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된다.

"바로 전날 정서적으로 긴장을 느꼈다면,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가?"하는 질문에 '식구들'이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다. "지난 날에 즐거움을 느꼈으면 그 요인이 무엇이었는가?"하는 질문에도 역시 '가족'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나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결혼했다. 그러나 나는 남편 역할과 아버지 역할에 실패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남편들 처럼 가부장적 아버지 밑에서 아내 위에 군림하는 남편의 본을 보고 자란데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 결혼했기 때문이다. 나는 너무 늦기 전에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새롭게 배워서 실천하겠다고 40이 다 된 나이에 유학길에 올랐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가정생활의 원리를 배우면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하므로 나는 역기능가정을 순기능가정으로 변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우리는 흔히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은 "남자보다 여자가 하기 나름이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가정의

행복은 80%가 남편/아버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사랑은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결혼의 행복이 여자보다 남자 하기 나름이라면, 우리 남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족역할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에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결혼의 성격이 가부장적인 위계질서에서 사랑과 신뢰에 기반을 둔 동반자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일 것이다. 일방적 권위가 상호적 권위로 대체되고 있다. 남편을 하늘과 같이 받들라는 것이 당연시되던 관계에서 피차 복종하면서(엡 5:21) 서로 사랑하는 우애관계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역할재구성(role redefinition)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가정은 갖가지 갈등으로 불안정하다. 위기의 증상이 구타와 별거, 그리고 이혼으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의 원인에는 부부역할에 대한 기대차이, 부부간 친밀감 표현에 대한 기대상승, 자녀양육과 가사분담의 문제,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 여성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재정운용에 대한 견해차이, 성격, 욕구, 가치관, 성장배경, 결혼기대, 사고방식의 차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역할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달라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기대되는 역할에 실패하는 예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전통적 역할규정에 집착하는 경우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은 가부장적 역할 고집하고 아내를 노동, 자녀양육, 가사노동 담당을 혼자 담당한다. 이때 여성은 스트레스로 탈진할 수 있다. 수직적 역할 규정에서 수평적이고 유연한 역할재구성이 요청된다.

둘째, 역할실패의 또 다른 예는 배우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혼으로 문제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사람을 바꿔도 같은 패턴이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옛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 이라 하지 않았던가? 배우자를 바꾸는 데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법, 대화하는 기술을 배우면 된다.

해결책은 기존의 관계 속에 창조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추가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경청하며 깊은 차원에서 반응하는 것;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가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 자녀양육과 가사에 협력하는 것 등이다. 가족 간의 위계설정을 최소화하고 부부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서로의 역할에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역할 재구성이 요청된다. 자녀와 질적인 시간(quality time)을 가지는 것이 요청된다. 이제 부모자녀관계는 전



문가-고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녀의 독특한 요구들에 창조적으로 부응하여야 한다. 교사, 상담자, 의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부관계나 부모자녀 관계에서 서로의 정서통장에 입금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전에는 위계질서가 가족 관계를 유지시켰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가족 간의 관계의 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정서적 친밀감과 사회적 친밀감, 성적 오락적, 영적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족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친구 같은 남편, 친구 같은 아버지

무엇보다도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어머니를 사랑해주는 아버지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 자녀의 어머니를 사랑해주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유교적 전통에 의해 형성된 아버지 상은 ‘일정한 거리를 느끼게 하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아버지는 자녀가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운 분이였다. 이제 아버지들은 아내를 동반자로 사랑하고 자녀와 친밀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상한 아버지로 거듭나야 한다. 현대에 바람직한 아버지는 친구 같은 아버지, 함께 놀 수 있는 아버지,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아버지, 대화하는 아버지, 아내를 배려하고 가사에도 동참하는 아버지이다.

남자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1) 관계는 시간을 먹고 자라난다고 했다.

매일의 삶이 너무 바빠서 양적으로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아내와 자녀를 위해 시간을 만들도록 하라. 질적 시간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다. 하루 중에 정기적으로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문제”라고 하였다. 아내와 외식을 하거나 산보를 하면서 대화하는 시간,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은 가족의 행복도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2) 매일 가족 간에 ‘인터뷰 하기’ 를 일상화해 보라.

아내를 파악하는 언어적 방법으로 추천할만한 것은 '아내에 대해 질문하기'를 일상화하는 것이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주고받는 일상적 대화보다는 매일 매일을 경험세계를 공유하는 감정대화, 심정대화가 필수적이다. 대화를 통한 정서적 친밀감이 없이 성적, 영적 친밀감을 누리기는 어렵다. 친구같이 다가가는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의 하루 일과, 친구들, 최근의 근심이나 걱정거리, 어렸을 적의 즐겁거나 괴로웠던 일들, 선호하는 음식, 음악, 영화, 장래의 포부와 희망 같은 것에 대해 물어보라. 그리고 그날 있었던 경험을 아내와 나누도록 하라.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 힘들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런 질문을 주고 받음으로 서로의 경험세계를 공유하는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피차간에 연결감을 느낄 것이다.

(3) 부부가 진정으로 친구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호감을 갖고 좋은 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행복한 부부는 배우자를 가장 친한 친구라 고백한다. 친구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본 좋은 일이다. 언어적으로 당신의 호감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은 '상대방의 좋은 점과 고마웠던 점'을 말하는 것, 즉 칭찬해 주는 것이다.

(4) 자신의 행동에 의해 상대방이 불쾌감과 좌절감을 갖게 되었을 경우, 그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존경해요'와 같은 말을 천국의

방언이라고 했다.

결혼생활의 행복은 거창한 일들이나 커다란 성취에 있지 않고, '함께 하는 작고 일상적인 일들'에 있다. 아침을 서로 근근하게 안아 주는 것으로 시작해 보라. 하루에 적어도 5번씩 안아주라고 권하고 있다. 상대방의 괴로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스트레스에 관해 질문하고 들어주고 이해해 주면 정신적으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매일 그날에 경험했던 히로애락의 감정을 나누는 심정대화를 한 후에 그날의 감사제목과 기도제목을 하나씩께 아리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라. 잠이 달 것이다. 단잠을 잘 수 있는 부부는 참으로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는가!

나는 남편들에게 자신의 정서지능(EQ)을 개발하도록 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아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매일 매일 심정대화를 나누라고 권하고 싶다. 대화는 결혼생활의 혈관과 같다. 대화경화증에 걸린 부부가 늘어가고 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분방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다. 겉으로는 결혼했는데, 속으로는 이혼한 부부처럼 살고 있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는데, 정서적 이혼상태에 있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 적용되어야 할 관계는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간의 관계이다.

효행장려지원법(법률 제8610호 2008.8.4시행)에 따른

효 교육 지도사 및 강사 양성과정 모집



최정성 박사

인천효교육원(사단법인 부모사랑운동본부 인천지회)에서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의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담당할 효교육 지도사 및 강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자 격

- 효교육에 관심있는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 교사, 교감, 교장 출신, 대기업 임원, 공직자 출신, 권위경험관
- 목회자(목회경력 10년 이상), 목회자 사모
- 기타 분야에서 효행 교육을 강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특전: 강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원에서 지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부 설치 및 교육원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교육일시: 2011년 1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00 - 15:00까지 (10주간 이론수업: 이론과정 이수 후 강사교육에 필요한 심화과정) 있음

▶ 정 원: 정 원 30 명(선착순 접수)

▶ 교 육 비: 60만원(이론과정 이수후 우수학생에게 장학금 20% 환부: 자격 검증료 및 교재비 포함) 국민은행 668101-01-535497, 예금주: 강준근(인천효교육원)

▶ 강 사

- 박필연 교수: 부모사랑운동본부 대표회장
- 강준근 교수: 인천효교육원 자부장
- 최정성 교수: 인천효교육원 원장
- 박희원 교수: 서울문래청소녀수련관 팀장
- 허영성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겸임교수
- 오성현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윤리 교수
- 김용희 교수: 노인생활유사체험 전문 강사
- 이상국 교수: 노인생활유사체험 전문 강사
- 정현석 교수: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소장
- 나근형 교수: 인천광역시 교육감(이래 초빙교수)
- 유희우 교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김구성 교수: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전광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김성필 교수: 인천제논대학교 교수
- 고영기 교수: 한양전문학교 학장
- 권도국 교수: 개암구다문화센터 센터장
- 최상필 교수: 원광대학교 사회복지 전문 강사

▶ 장 소: 사단법인 부모사랑운동본부 인천지부 (인천효교육원)

▶ 접수기간: 2011. 1. 17(월) ~ 1. 26(화), 오후 5시까지

▶ 기 타: 본 과정은 교육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효 교육 지도사 및 강사 자격증을 취득, 이후 효교육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차후 효 교육 지도 및 강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효교육원) 자부장이나 사무국장(연구처)에게 문의 할 것

▶ 문의전화: 032-555-6422(사무실), 010-3917-9125, 032-282-3023(FAX)

E-mail: kang9394@hanmail.net(강준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연화동 686-4번지 개정빌딩 3층 (인천효교육원)

☎ 사단법인 부모사랑운동본부 인천지부 인천효교육원 인천지부장 강준근 / 교육원장 최정성 박사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교사?

글 김윤권 이사벨중학교

작년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짧지 않은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즐거운 겨울방학을 기다린 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단순히 방학이 좋아서도 아니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어서도 아니다. 그렇다고 날씨가 너무 추워 수업을 하기 어려워서도 아니었다. 교사들이 겨울방학을 기다리는 건 학교 밖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학교교육은 성적 지상주의라는 절대 신화의 영향 속에 놓여 있다. 학생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리 가치 있더라도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라는 또 다른 주제와 연결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경향은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더해져 인문계 고등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해 보인다.

최근 서울시 교육감이 학교장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언론의 기사는 그래서 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 없이 새롭게 다가온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육감들은 새해의 주요 사업으로 학력신장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학력신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들의 평가 때문일 것이다. 직선제로 바뀐 이후 교육감 선거는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뒤섞인 복잡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의 자녀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심리가 깊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없는 교육감들은 성취급 차별 지원 운운하며 일선 학교에 학력 신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교는 상급 기관의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다.

이러한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은 학기말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 학교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출석에서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다. 중3 학생들 역시 2학기 기말고사 이후에는 학교 수업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부 학년의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전 학년에 퍼져 12월 초나 중순에 치뤄지는 기말고사 이후 겨울방학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은 학교 교사들에게 정말 곤혹스러운 시간이 되고 있다.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학생들은 자신이 배울 내용이 남아있음에도 수업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거나 교사들에게 대놓고 시청각 자료를 보여 달라고 떼를 쓴다. 이러한 현상을 알고 있는 교육 행정기관도 갖가지 아이디어를 모아 학교 현장에 제공하지만 현장감의 결여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의 현장과 교육 행정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으로 더 실패감을 맛보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교사들은 겨울방학을 학생들보다 더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업 시간에 학원에서 준 새 학기 문제집을 풀고 있는 학생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한 학년을 마무리하는 학교의 모습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12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또 다른 중요한 행사는 새 학년도 학생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새 학년에 올라가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학교들의 경우, 2학기 기말고사를 치루고 나서 학생회장, 부회장선거를 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접근이다. 학생들이 성인된 이후에 만나게 되는 각종 선거와 비교하여 학교에서의 선거는 그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꽤

오래전부터 많은 학교에서의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교육적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다. 대학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는 나름 관심을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입시에서 벗어난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는 입후보자들이 없어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일이 부지기수이다. 한편 초등학교에서의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들의 선거가 아니라는 말은 옛 이야기처럼 들린다. 물론 초등학생들의 역량을 생각할 때,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를 두지 않은 경우라면 아무리 리더십이 좋고 교우 관계가 원만한 학생이라도 쉽게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이다.

외부적인 분위기 못지않게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많이 변한 것 같다.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이 학생회장을 할 경우, 학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데 많은 시간이 투자될 것을 염려하여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약한 부회장 후보로 나서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또한 자신의 런닝메이트를 정할 때, 어떻게 학생들을 잘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손쉽게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한다고 한다. 심지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처음에 제안한 런닝메이트를 일방적으로 깨고 다른 런닝메이트를 구해 선거에 임한다고 하니 그 수준이 가히 기성 정치권의 모습과 유사하다. 순수해야 하는 학생들의 사회, 정치 학습에 기성 정치권의 나쁜 모습들이 그대로 유입되는 것 같아 슬픈 마음이 든다. 학생들에게 아무리 함께 하는 정치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과 학생을 말해도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학부모들과 사회의 간섭은 그들을 선거 기간 동안 다른 사람처럼 느끼게 한다. 이러한 학생회장 선거 역시 교사들이 겨울방학을 기다리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일 년의 학교교육활동을 마무리하는 연말, 기독교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행복한 추억들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일까? 아니면 돌아보고 싶지 않은 아픈 시간들로 인해 한사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모습일까? 사실 이러한 학기말의 상황은 한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왜곡된 모습에서 자유로운 기독교사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힘든 상황조차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를 기독교사로 부르셨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육의 아픈 상황조차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먼저 희생함으로 학생들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하게 된다. 새해를 기대할 수 있음은 지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이제는 다른 의미에서 겨울방학을 기다려보자..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7-8)

할리우드 개척자의 즐거운 오류

할리우드를 정복하기 위한 심형래 감독의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야심작인 <라스트 갓파더>는 '공룡 SF물 만들기' 외에 그가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인 '영구 캐릭터'를 내세우고 있다. 1951년 뉴욕의 거리를 배경으로 마피아의 대부 돈카리니(하비 카이텔)의 숨겨진 아들 영구(심형래)가 그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겪는 좌충우돌식의 행동이 영화의 전면에 흐른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이런 코미디는 없었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 최고의 영화인 <대부>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바보 영구와 결합시킨 새로운 슬랩스틱 코미디가 탄생한 것이다.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심형래 표 영화의 구성은 어설픈 면이 없지 않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깔끔하다. 그 대신 관객을 객석에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한 방이 없는 것이 아쉽다. 코미디물은 한방 터뜨리는 웃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라스트 갓파더>는 큰 것보다는 잔 편치로 승부수를 띄워 나간다. 그나마 남의 웃을 입은 듯 보이는 대부와 영구와의 만남은 그 자체가 코미디인 까닭에 웬만한 허점들은 '웃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했던 영구의 장점들이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할리우드의 관객들을 너무 의식한 탓일까? 아니면 찰리 채플린과 미스터 빈에 주눅이 든 것일까? 한국적 코미디의 대명사가 된 영구가 아버지로 나오는 하비 카이텔의 세계적인 연기에 압도당하는 바람에 그가 너무 작아 보이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이번에도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어른들의 판단은 긍정과 부정으로 분명하게 엇갈렸다. 왜 그랬을까? 심형래 감독은 절충이 아닌 모험을 선택했어야 했다. 절충은 모험이 끝난 뒤 생각해보는 대안일 뿐이다. 정말 할리우드를 정복하고 싶다면 미국인들이 한 번도 본적이 없는 한국식 바보 코미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다. 어차피 한국에서의 흥행이 발판이 되어 미국상영을 모색한다면 한국에서 먼저 웃기고 미국으로 건너가도 괜찮다. 성룡이 그랬던 것처럼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영구의 뉴욕입성기를 보여주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형래의 '영구'는 산업사회의 비인간성을 풍자하는 '찰리'나 소시민적인 자이를 드러내는 '미스터 빈'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캐릭터다. 그는 바보스럽지만 순박한 한국의 정서를 간직하고 있다. 서구인들에게 영구는 어차피 새로운 존재인 만큼 문화적 이질감을 감수하는 대신에 동서양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21세기 형 바보캐릭터의 진수를 영구 안에 심어줄 수 있어야 했다. 현대인들은 동서양의 문화를 떠나서 자신 보다 모자란 존재로부터 위안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심감독이기에 영구가 미국에 부는 한류열풍의 선두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아쉬움이 마음 한 구석에 서려있다.

진중권의 비판에 대한 변론

하비 카이텔도 이게 처음엔 코미디가 아닌 줄 알았다더라. 그런데 대본을 읽다보니 너무 재미있었다. 결정적으로 그가 출연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나를 트레일러로 불러서 직접 해준 이야기인데, 네살 먹은 아들에게 꼭 남겨주고 싶은 영화가 있었으면 싶어서라고 했다. (<할리우드에 영구 없다? 아니 있다>, 2011년 1월 4일자 '씨네21')





과의 인터뷰에서)

심형래 감독이 밝힌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며, 그것은 그의 최신파작 <라스트 탱고>를 놓고 벌어진 논쟁과 그의 영화관(映畫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의미 깊은 진술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할리우드의 관록있는 배우로 정평이 나있는 하비 카이텔은 이 영화를 ‘네 살 먹은 아들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뜻을 통해 이 영화가 어린 아이들이 볼 만한 수준의 영화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연령의 의미로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고 좋아할 수 있는 수준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린 아이들이 볼 만큼의 교육적 가치를 고려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비록 마피아 대부의 후계자의 기상천외한 에피소드가 나열되고 있지만, 바보스런 영구의 착한 속 마음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동네를 잘 살게 만든다든지, 엄청난 돈을 고아원에 기부하는 등의 선한 행위를 통해 이 영화가 ‘착한 영화’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것은 하비 카이텔 자신이 <악질 경찰>이나 <저수지의 개들>처럼 강하고 개성 넘치는 연기를 펼쳤지만 현실의 선함과는 거리가 먼 작품을 해왔던 까닭에 자신의 이전 영화들과는 다른 ‘착한 영화’를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보적인 문화평론가 진중권이 자신의 트위터에 “유감스럽게도 난 한번 불량품을 판 가게에는 다시 들르지 않는 버릇이 있어서, 이번엔 봐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네요.”라는 비판적 글은 새롭게 수정될 필요가 있다. <라스트 탱고>는 불량품이기 보다는 어린 아이들이 볼 만한 수준의 이해능력을 갖춘 정교하지 못한 작품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는 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토이 스토리>가 보여주듯이 새롭고 세련된 기술과 연출은 어른들이 보아도 깜짝 놀랄만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어른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린이들이 보는 영화를 평가하는 일에는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어떤 어린이들은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사육장 앞에서 거대한 몸집의 코끼리에 열광하기 보다는 높은 철망 아래에 집을 짓고 사는 개미들의 움직임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같은 대상을 경험할 때 갖게 되는 어른의 기대와 아이들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또한 진중권은 “영화관에서 남들은 한번 실패하면 다들 찌그러집니다. 재능은 있으나 아예 한번 실패할 기회도 못 잡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구요. 근데 녀름은 허접한 음식 내놓은 음식점에 다시 갑니까? 주인 옹기 북돋아주려?”하며 할리우드를 정복하려는 한국인 감독이 만든 영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의 영화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라스트 탱고>를 허접한 음식에 비유했다. 이 역시 음식과 음식을 둘러싼 문화적이며 기호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발언 역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음식점을 찾는 이유는 단지 음식이 맛있기 때문도 있지만, 교통여건이나 분위기, 음식점 주인의 친절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스트 탱고>는 개봉 한달을 넘기면서 25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이 관객들이 단순한 애국심 마케팅이나 심형래의 열정적인 TV 홍보에 속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중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비판자의 교만일 수 있다. 영화는 사회적 산물이며 영화의 가치가 꼭 스크린 위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심형래의 한(恨)은 풀릴 것인가?

1999년 여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세종문화회관은 심형래 감독이 제작한 영화 <용가리>를 보기 위한 꼬마 관객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심형래 감독이 제작한 영화의 단골 관객이 어린 아이들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전의 그의 영화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시내 중심가의 극장은 물론 한국 공연 예술의 중심인 세종문화회관에 까지 입성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일 것이다. 자신의 영화는 늘 '회관용'이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하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개그맨 출신다운 우스개소리 속에는 그동안 자신의 영화를 알아주지 못한 한국영화계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 배어 있었다. 심형래가 나오는 영화 혹은 그가 만든 영화는 수준이 낮은 것이라는 시각 때문에 서울 시내의 변변한 극장에 한 번 걸리지 못하고 어린이 회관이나 지방 중소도시의 도민, 시민회관, 심지어는 예식장을 찾아 다녀야 하는 수모를 겪었던 그였으니 말이다. 그의 할리우드 진출은 과거의 수모와 한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핵전략인 셈이다. 그러나 <디 워>와 <라스트 갓파더>를 통해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그도 우리도 깨닫고 있는 중이다. 오히려 심형래 감독의 한(恨)은 그의 영화가 아닌 '영화 만들기'에서 오는 삶 자체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나 싶다. 그의 할리우드 도전기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눈여겨 볼 만한 의미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 까닭이다.

첫째는 도전하는 용기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듯이 세계적인 영화만들기를 꿈꾼다면 누군가는 할리우드에 입성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을 벌여야 한다. 교회는 세속적인 사회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비록 예배당은 작아도 자신을 둘러싼 지역사회와 온 세계를 품어야 한다(행1:8).

둘째는 비판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일이다. <디 워>에서 특수효과에 비해서 즐거위가 형편없다는 말을 듣자 이번에는 <토이 스토리>와 <에반 올마יתי>등의 각본을 쓴 '조엘 코헨', '알렉 소코로브' 같은 할리우드의 일급 작가를 영입하여 시나리오를 보완했다. <라스트 갓파더>는 <디 워>보다 훨씬 짜임새 있게 만들어졌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 못가서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한사람에게서 나오는 창조력은 한계가 있다. 교회는 성도들과 협력하고 세상의 비판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쓴 소리들을 교회 답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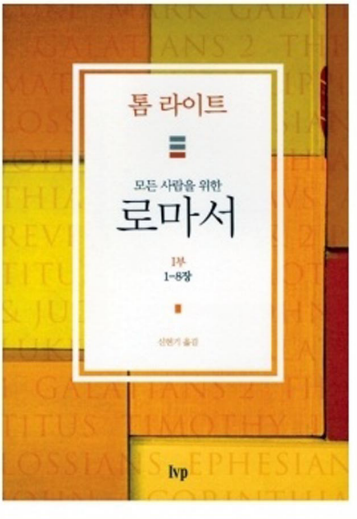
셋째 심형래 감독은 성장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100편의 영화를 만든 임권택 감독은 한국이 자랑하는 영화의 거장이지만 그의 모든 영화들이 훌륭한 것은 아니다. 영화를 많이 만들다 보니 영화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성이 담기기 시작한 것이다. 심형래는 여전히 영구로 각인되어 있지만 영화에서 그는 지금 자라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 교회는 자라나야 하는 생명체란 사실이다.



톰 라이트(N.T. Wright)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I, II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0)



영국 성공회 더럼(Durham)지역 주교였고, 작년 9월에 성 앤드류대학교(St. Andrew University)신약교수로 자리를 옮긴 톰 라이트(N.T. Wright, 1948-)는 금세기의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로 불리어진다. 우리말로 번역 출판된 그의 『신약성서와 하나님의 백성』, 『예수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등은 한결 그를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

로마서는 신구약성경 전체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책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로마서는 기독교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어거스틴, 루터, 웨슬레, 바르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루터는 그의 로마서 주석서문에서 “이 서신은 실로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참으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로마서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마땅히 마음으로 모두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하여야 할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성경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로마서 주석을 쓰고 싶은 충동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이트는 2004년부터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현대인들에게 보다 더 가까이 들려주기 위해 그 자신의 새로운 원문번역과 해석을 담은 《에브리원, Every One 주석시리즈》 간행하였는데, 그

중에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에 의해 로마서와 마태복음서 부분이 작년에 번역 출판되었다. 라이트의 시리즈 중에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I, II』가 가장 먼저 번역 출판 된 것은 《에브리원 주석시리즈》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평이한 문체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라이트 로마서이해는 물론 그가 평생을 걸쳐 강조하려는 중요한 신학적 아젠다가 들어 있다.

우리가 라이트의 이 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The New Interpreter's Bible 주석시리즈(2003)에 실린 그의 전문적인 로마서주석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의 전문적인 로마서주석의 축소판이다.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후자는 보다 전문적인 로마서연구가들이나 목회자를 염두에 두고 보다 자세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면, 전자는 평신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전개되고 있고, 매 문단의 주석마다 일종의 Q&A해설서처럼 적절한 예화를 가지고 있다. 로마서에 대한 라이트의 보다 전문적인 주석을 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2003년도 주석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약간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책을 읽어도 그의 핵심적인 신학적 아젠다는 물론, 그의 로마서 주석이 왜 우리 시대에 엄청난 충격과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주석의 틀을 탈피하고 있다. 전통적인 주석들은 성경의 각 구절, 각 문단마다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라이트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로마서를 하나의 큰 내러티브로 보고, 이 내러티브 안에서 여러 가지 작은 내러티브를 발견한다. 말하자면 로마서라는 하나의 큰 숲과, 그리고 그 숲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나무들을 본다. 따라서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찾아 나서는 것보다도 먼저 나무가 어울려 구성하고 있는 숲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라이트가 발견한 숲은 무엇인가? 그가 로마서에서 발견한 숲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역사이다. 이 위대한 구원역사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들은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이다. 물론 이 중에 가장 중심적이고 대표되는 나무, 곧 모든 나무중의 나무요, 모든 나무를 대변하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교회를 대변한다. 그리고 복음, 구원, 믿음, 하나님의 의, 칭의, 순종, 성화, 예배, 헌신, 이웃사랑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담, 아브라함, 이스라엘, 교회를 연결하는 중요 고리들로 제시된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 바르트, 로이드 존스, 존 스타트 등 수 많은 로마서 주석가들은 가능한 한 로마서를 개인 구원론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들도 로마서로부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역사를 발견하였지만, 구원역사는 개인구원의 외연에 지나지 않았다. 로마서로부터 그들이 찾은 중심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죄용서와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개인구원론적-수직적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로마서 1-2장에서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죄와 비참을, 3-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를,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교리를, 6-8장에서는 순종과 성화 및 영화교리를, 9-1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나타난 이신칭의교리를, 그리고 12-15장에서는 신자의 실천 및 윤리를 발견하였다.

라이트는 전통적인 개인구원론 중심의 수직적인 로마서 이해 보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회론 중심의 수평적 로마서 이해가 로마서에 대한 바른 이해로 본다. 라이트에게 있어서 로마서의 중심적인 질문은 인류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룰 수 있느냐이다. 물론 라이트가 로마서로부터 개인 구원론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 구원론은 교회론에 종속적이고 부수적인 것이다. 라이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 하실 때 그를 통하여 위대한 구원역사를 성취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류와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역하였고, 죄로 오염되었고, 죽음 아래 떨어졌다. 하나님은 인류와 피조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인류와 세상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시킬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출애굽사건을 마련하셨고, 모세를 통해 토오라(율법)를 주셨고, 그리고 비벨론으로부터 제 2의 출애굽사건을 이루셨다. 하지만 아담처럼 이스라엘민족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역사의 수행자가 되는데 실패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비벨론의 포로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상태에서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이스라엘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 곧 그의 언약적 신실성을 나타내셨다.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믿음은 의와 구원의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며,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법적인 그리고 종말론적 선언이다.

이처럼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는 전통적인 로마서 해석을 탈피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보여준다. 구절 중심에서 내러티브중심으로 접근하고, 개인구원론적-수직적해석에서 교회론적-수평적 해석을 시도한다. 그러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을 위해 로마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이방인과 그리고 중요한 어휘들인 복음, 구원, 믿음, 의, 칭의 등이 새롭게 해석된다. 로마서에 대한 라이트의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이들은 라이트의 시도가 참으로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라이트의 새로운 시도가 로마서의 본래 메시지를 이탈하고 있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가 라이트의 시도를 표준화하여 전통적인 시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라이트의 새로운 시도는 로마서 그 자체의 역사적 무대장치를 통해 시현되고 있는 웅대한 로마서 드라마를 보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본다.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도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위해 다른 한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라이트의 새로운 시도에 매료되어 전통적인 시도를 무가치한 것으로 단정하거나, 전통적인 시각에 집착하여 새로운 시도를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중기과정 4기 영상캠프를 다녀와서

글 최유리 서강대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생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에서 지난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경북 과산의 웨스트가나안 호텔에서 동역회 후원위원회장이신 김원수 교수의 후원으로 4박 5일간의 영상캠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라브리 성인경 대표, 중앙대 김승욱 교수, 고신대 강진구 교수의 세계관 강의와 장영진, 유지는 PD의 실가지도로 진행된 이번 캠프의 참가후기를 통해 미디어를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을 펼치고자 하는 비전있는 젊은이들의 지원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2011년 새해가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아 CMCA 4기 영상캠프를 다녀왔다. 4기를 시작할 즈음 가을 무렵부터 영상캠프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비롯해 다른 동기들도 영상캠프를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영상캠프는 미디어 아카데미 4기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집중적 코스이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진행되는데 1주일에 한번 뿐이기에 시간적으로 많은 것을 담아 내지 못하고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학을 빌어 4박 5일간의 캠프를 통해 그동안 배운 것들 중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총 4박 5일로 진행되는 캠프는 첫날 스키장에서 스키와 보드를 타고 놀기, 둘째 날은 '라브리'에서 오신 성인경 '한국라브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세계관 강의. 또 남은 3일은 학생들끼리 4인1조가 되어 그동안 배웠던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주제와 장르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날, 보드캠프

첫날 충북에 있는 우리의 숙소인 호텔에 짐을 풀고 동기들과 간사님과 함께 스키장으로 갔다. 한 번도 못 와봤던 스키장을 미디어 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오게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렇게 첫날엔 추위에도 악을 써가며 한번이라도 더 타려고 부지런을 떨었다. 신나게 보드를 타고(수십 번 넘어져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숙소에 돌아와 따뜻한 방에 몸을 녹이고 동기들과 수다가 떨어지며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눴다. 좋은 호텔에서 푸짐한 식사를 하고 따끈한 바닥에 이불을 덮고 누워 나누는 수다가 그저 즐거웠다. 다음 날부터 시작될 세계관 강의와 또 밤을 새면서 편집 작업을 할 것이 분명한 조별영상과제 등 머리를 아프게 할 뻔한 일정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첫날은 그저 마음 편히 쉬었다.



둘째날, 세계관 심화과정

둘째 날은 성인경 '한국라브리' 대표님과 하루 종일 세계관 강의를 함께 했다. 제 1강-지식인들의 세계관, 지식인들의 특징,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 뚜렷이 나타나는 모습들이기도 하다. 배움이라는 이름 아래 학문적 지식들을 머리에 쌓아 놓지만 그것은 사회적 진출을 위한 수단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머릿속의 지식을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수단 보다는 지식인들의 반열에 오르고 다른 이들과 구별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다.



우리들은 몸은 아직 어린아이인데 머리만 커져가는 세대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이것은 점점 내려놓기 힘들어진다. 또 감당하기 버거워진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자산을 통해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자 한다. 다른 이들을 내리누르면서 말이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지식인이라는 이름아래, 소위 배운 사람들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범하기 쉬운 죄들을 짓고 있나 깨닫게 되었다. 제 2강, 3강에서는 성경에 대한 중요성과 성경적 기초가 된 세계관을 공부하는 실질적인 방법론들에 대해 들었다. 목사님이 정리해주신 결론들에 대해 많은 공감이 되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세상이다.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요즘 참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젓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12~14)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다. 또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야 할까? 김승욱 교수님의 강연에서 미래세대에 대해 언급 하시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이상의 발전을 하게 될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하셨다. 앞으로의 세대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더 무시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흐름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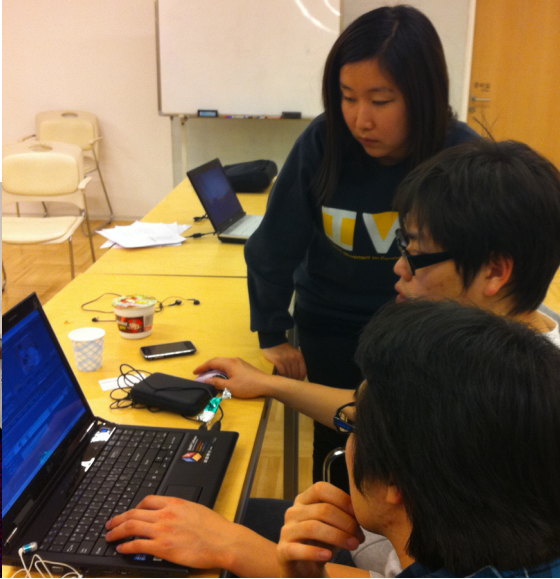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봤다. 앞으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없어진다. 앞으로 싸워나가야 할 것들이 많고 수많은 거짓과 악함들 가운데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할 여정들이 참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분명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오는 두려움일 것이다.

힘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하는 힘, 판단하는 힘, 분별하는 힘,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토대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겠다.

셋째 날 부터 하이라이트인 영상제작수업에 들어갔다.

4인1조가 되어 그동안 배웠던 세계관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이다. 자유주제, 장르도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는데 공간이 산속의 호텔이다 보니 최대한 사람과 사물을 적절히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했다. 우리 조는 안경을 세계관으로 비유를 해보았다.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인해 더러워진 안경을 결국 성경을 통해 깨끗하게 닦고 맑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좋았고 의미도 좋았지만 역시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힘이 좀 들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다시 한 번 깨달으면서 중간 평가 때 PD님들께 지적당한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짚고 수정하면서 마지막 날은 조원들과 거의 밤도 새보았다. 거의 모두가 같이 밤을 새면서 열심히 작업했다.





마지막 날, 평가의 시간

마지막 날 오전에 드디어 최종 완성 본을 함께 보며 평가를 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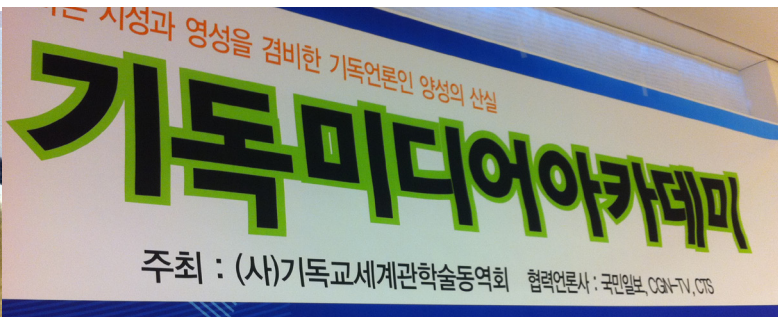
우리 조를 비롯해 다른 조 역시 중간평가 때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였다. 실력 면에서는 아무래도 영상물은 많이 찍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번의 조별작업으로 많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나도 조별작업을 세 번 째 해보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다. 큰 발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원들과 영상을 만드는 과정들이 참 즐거웠다. 같이 아이디어를 짜는 것에서부터 촬영하는 내내 웃음이 끊어질 않았고, 어설픈 결과물을 보고 또 웃

고.. 아직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마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것이겠지? 아직은 즐거워겠다. PD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

영상캠프를 마치면서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2박 3일 동안 한 장소에서 다른 동기들과 선배님들, 간사님들, PD님들과 함께 영상을 같이 만든 것이다. 영상에 출현해주시기도 하고 옆에서 도와주시거나 코멘트를 해주시며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만큼 든든했고 함께 했다는 것이 참 즐거웠다. 사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밥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힘든 일정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 끼니마다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양질의 식사였다고나 할까.. 그만큼 우리가 있었던 호텔 (hotel west of canaan)이 참 좋은 곳이었다. 눈 덮인 산과 노을이 아름다웠다. 이사님께서 전액 후원을 해주

신 덕분에 좋은 시설에서 편하게 지냈고 좋은 추억이 되었다.

CMCA 47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아쉬움도 참 큰 반면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한다. 이제 곧 학생의 신분을 벗고 세상에 뛰어 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그만큼 이곳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이 참 많이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채워졌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누리게 하셨다.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했다.

후원해주신 분들과 아카데미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남은 시간동안 더 열심히 배워서 좋은 기회를 통해 미디어 아카데미를 수강할 수 있게 된 것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2011년 정기총회 개최

2011년 1월 17일 오후 3시 중앙성결교회 성봉예배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 임원, 대의원들을 모시고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활동 영상보고 및예결산 승인, 2011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총회 이후에는 중앙성결교회에서 후원하는 만찬을 나누며 회원들간에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CGN-TV 이슈진단 프로그램 출연

2011년 2월 7일 방영된 CGN-TV 이슈진단 "민족고유의 명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프로그램에 손봉호 이사장, 김승욱 실행위원장, 이승구 교육위원장이 출연하여 제사문제 및 추모예식에 관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 방송은 CGN 홈페이지(www.cgntv.net) 방영 프로그램 이슈진단2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월드뷰 로고변경

그동안 임시로 사용해 오던 로고를 2011년부터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반영한 새 로고를 통해 신년에는 세계관 운동의 확산과 보급에 더욱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구 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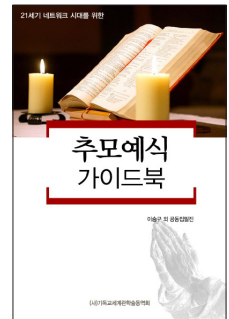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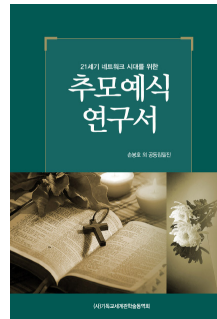
신규 로고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독교적 추모예식 연구서, 가이드북 발간

지난 1년간 진행해 왔던 기독교적 추모예식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마치고 연구서와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신학자와 목회자 등 여러 명의 전문 연구원들이 참여한 이번 연구서 발간으로 기독교 가정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가정까지도 기독교적인 추모예식을 드리는데 바른 지침일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정판만을 제작하므로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02-754-8004).



대외협력위원회 미안마 방문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김승욱 실행위원장과 김승태 대외협력위원장이 미안마 홀리라이트 대학을 방문합니다. 작년 MOU체결 이후 구체적인 협력안을 논의하고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방문을 통하여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회비 및 후원(2010.12월)

개인회비_단위(원)

3천 황정현, 김성권, 이수정, 김창현, 김혜숙, 김태양, 박경준, 조성진, 한인관, 구재형 4천 최원길 5천 강은정, 구재환, 구성덕, 권명중, 길원평,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미정, 김병국, 김상욱, 김은하, 김일환, 김정명, 김정심, 김정준, 김철수, 김태운, 김현승, 김혜창, 남상수, 남서희, 마민호, 박기언,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배무련, 소중화, 손영일, 송시섭, 신기혁, 신현주, 심정하, 안용준, 양숙, 양영태, 유창은, 유충열, 윤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명진, 이민화,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인수, 이인주, 이은미, 이한기, 임선재, 임재영, 임춘택, 임형준, 장남기, 장현일, 전충국, 정법채, 조은아, 조인진, 조창근, 조혜경, 주경식, 최광수, 최용준, 최한빈, 허재일, 황나란, 홍성민, 홍승기, 황의서 6천 윤경선, 임고운 9천 오범석 1만 권민규, 김경희, 김남국, 김성상, 김세령, 김세완, 김정호, 김은혜, 김경일, 김영완, 김영애, 김홍섭, 홍미경, 서성록, 손종숙, 명운수, 박시운, 박창우, 박한배, 안석, 양성만, 양성일, 원호영, 오혜정, 유건호, 유영준, 유재봉, 유지황, 유해무, 유화원, 이규현, 이명수, 이성수, 이수연, 이시영, 이윤석, 이윤재, 임지연, 이향숙, 임일택, 전성구, 전중화, 전태수, 정현주, 조용현, 조현철, 주성철, 송정은, 신효영, 강미라, 구춘원, 최연숙, 이길형, 이종국, 한혜실, 허찬영,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최동원 2만 강대훈, 김옥태, 김용식, 노용환, 배은경, 박신배, 박한, 범경철, 변우진, 우시정, 이경재, 이대환, 이명희, 이현정 3만 강영택, 김동원, 김방룡, 김상범, 김중락,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오의석, 우병훈, 이대희, 이은실, 장수영, 정동섭, 조무성, 정은애, 추태화, 황정진 5만 김성락, 소애자, 송인규, 신현호, 이승구, 조성대, 정희영, 채기현,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10만원 김원수, 김의원, 박상은, 전광식, 윤완철, 손봉호 15만 양승훈 20만 김승태 100만 이재희 150만 한윤식 **합계 5,875,000원**

후원기관_단위(만원)

3만 두레교회 4만 호남신학대학 5만 군산성광교회, 새언약교회, 삼일교회, 성덕중앙교회 10만 남서울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명성교회, 산정현교회, 새로남교회, 샘물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빛과소금교회, 언약교회, 온천제일교회, 은혜로교회, 자운교회, 참빛교회, 호산나교회 20만 수영로교회, 국군중앙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합계: 3,270,000원**

회원가입안내

(사)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는 2009년 5월에 통합하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로 거듭났습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뜻이 있으신 모든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일정의 회비 납부자)에게 드리는 혜택

1.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 <Worldview>와 학술지<신앙과 학문>또는 <통합연구>를 보내 드립니다.
2. 석사 이상 회원분들은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원으로 자동등록됩니다.
3. 홈페이지를 통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각종 학회 및 세미나 발표논문과 칼럼,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4.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5. 연1회 CUP 출판사의 신간을 받아보실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6. 학문 연구에 뜻이 있으신분은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7. 회비(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비_1 구좌 : 5,000원

일반회원 : 2구좌(1만원) 이상

학생회원 : 1구좌(5천원) 이상

임원 : 6구좌 (3만원) 이상

이사 : 20구좌(10만원) 이상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정회원으로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CMS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FAX(0303-0272-4967)로 보내주시면 사무국에서 처리하여 드립니다.

CMS 출금이체 신청서

담당	책임자

앞

신 청 인 정 보			
상 호 (성 명)		납 부 자 번 호 (고 객 번 호)	
전 화 번 호		출 금 일 자	매월 /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30일
휴 대 전 화			미결제시 출금일 이후 재청구함.
이 메 일			

계 좌 정 보 (<input type="checkbox"/>개인 / <input type="checkbox"/>법인통장)			
은 행 명	은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주민등록번호	<small>(법인은 사업자번호 기재)</small>
월납입액	금	원 (₩)

【 CMS 출금이체 약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주시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4.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여 출금요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9.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
<p>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경계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p>

위 CMS 출금이체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또는 서명

※ 신청자 유의사항 ※

-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cmca
Christian Media &
Contents Academy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5기 모집안내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는 (새기독교세계관학술동맹회가 국민일보, CTS, CGN-TV 등 주요인문단체와 협력하여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해하여 편 미디어사대에 필요한 미디어 실무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개강 2011년 4월 2일 (교육기간: 2011. 4. 2~2011. 8. 27)

기독교세계관 강좌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과 소명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
기독교세계관과 역사관
북한과 통일문제
기독교세계관과 생명윤리
창조론과 진화론, 지적설계

미디어 이론 강좌

기독교인본인의 자세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유비쿼터스시대 미디어의 성경적 의미
실용커뮤니케이션
촬영이론
편집이론
뉴스원고 구성

영상실습 강좌

영상제작 기획과 스토리텔링
영상언어(앵글, 구성, 콘티, 뉴티티) 기법
방송뉴스 조별제작 스튜디오 실습
편집이론 과 실습
국민일보 필드trip
영상캠프(9월 6일)
졸업작품 포트폴리오 구성

- 손봉호(882)원 회장위원, 이원웅(전MBC)뉴스 명키, 조용래(국민일보) 논설위원 등 전 현직 언론실무진과 각 전공별 교수진들의 명강의
- 교육협력기관(국민일보, CGN-TV, CTS)을 통한 실재적 교육과 필드trip
- 성적우수자는 취업추천서 발급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류 다운로드-이메일 접수-서류심사-면접일자 개별통보-합격발표

접수기간_2011년 3월 28일(월)~3월 20일(일)

지원자격_대학 재학 또는 졸업자

면접전형_3월 20일 이후 개별통보

합격자 발표_3월 28일

교육협력기관

국민일보 CGN-TV CTS 기독교TV

수강비: 1,200,000원 >>> 등록금 200,000원 (본 프로그램은 수강비 전액 외부후원으로 등록금만 남임)

* 소수정예 교육을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 선발하므로 마감일보다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cmca.or.kr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22-4 한강로네상스빌 4층 402

문의: 02)754-8004 cmca@worldview.or.kr